

# 특판 예·적금 우대금리 관련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나,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뉴스1 4월 1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## 1. 기사내용

- 뉴스1은 4.19일 「예금자 올리는 ‘꼼수금리’ 그만... 당국 ‘실질지급 이자 표기’ 추진」 제하 기사에서
  - “금융당국은 예금자에게 상품 가입 전 실질지급 이자금액을 안내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으로, 필요시 감독규정 등 개정에도 나설 계획”이라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·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으며, 금융상품 설명 및 광고 절차 등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,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주식	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빈	(02-2100-2524)
	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	책임자	국 장	김범수	(02-3145-822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	(02-3145-8223)